

## 푸엔테스와 잠재소설(novela potencial)

김태중(한국의국어대학교)

글의 순서	
I.	들어가는 말
II.	소설의 새로운 언어
III.	바로크성(lo barroco) - 중남미 소설의 시공간(Kronotopo)
IV.	신화
V.	언어의 구성물 - 소설
VI.	미학의 장르 - 잠재소설
VI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20세기 소설적 글쓰기의 화두는 언어였다. 현실을 반영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투명한 기호로서의 언어에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자족적인 유희의 언어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20세기의 눈부신 과학적 발견에 따른 시공간 개념의 전환<sup>1)</sup>으로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시공간의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은 현실인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제 현실은 절대적이며 실체적(*sui genesis*)인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역동적 관계

1)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은 현대 시공간 개념의 기본이다. 동시성(simultaneidad)과 불확정성의 원리는 우주의 근본개념은 실체개념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속의 상대적 객체로 변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현실이 아닌 다양한 현실들이 바라보는 자들과의 상호관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즉 현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 속에 상대화된 모습으로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층적 세계들을 고정된 의미에 간혀있는 언어로 수용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며, 이 언어는 필연적으로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역동적 언어는 다의적(多義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는 자신의 의미를 자신의 밖에서 찾는 '편력의 언어'<sup>2)</sup>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편력의 언어'를 소설의 중심테마로 인식하고 탐구한 작가가 바로 까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이다.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그리고 소설구조와 언어 탐색이야말로 지금까지의 푸엔테스의 일괄된 태도인 것이다.

『가면의 날들』로 데뷔한 푸엔테스는 소설의 잠재적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실험하는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설언어를 탐색하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실험적 소설작업으로 이어져왔다. 그러한 그의 실험정신은 오늘까지도 부단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소설의 언어와 구조에 대한 그의 관심은 『중남미 신소설』(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1969), 『세르반테스 혹은 독서의 비판』(Cervantes o la crítica de la lectura, 1976), 『용감한 신세계』(Valiente Mundo Nuevo, 1990), 『소설의 지형도』(Geografía de la novela, 1993)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sup>3)</sup>

2) 카니발화된 언어, 부유(浮游)하는 언어, 유희의 언어, 이중적 언어(bivocalismo), 기표의 유희 등과 마찬가지로 말(단어)의 잠재적 의미(ambigüedad), 다의미성을 말한다.

3) 무엇보다도 먼저 “중남미 신소설”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1969)에서 푸엔테스는 부르주아지 형식의 서술 장르의 죽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언어에 기초한 새로운 미학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언어란 암유의 혼합배열(constelaciones de alusiones)로 의미의 모호성(ambigüedad)과 다층성(pluralidad)을 지닌 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설적 언어는 중남미의 현실을 거짓으로 위장시켰던 유괴되고 소외되고 낯설었던 언어가 아닌 언어를 창조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한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곧바로 뒷전의 역사의 바로 쓰기와 거짓 언어의 탈 가면화와 다름이 아니다. 후에 또 다른 글, “세르반테스 혹은 독서 비판”Cervantes o la crítica de la lectura (1976)에서 글쓰기의 자아비판 (autocrítica), 즉 자의식의 소설 (la novela consciente de sí misma)의 요소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그는 현실을 보는 관점은 유일할 수도 없고 계층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피력한다. 현실은 선택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을 역성한 『중남미 신소설』, 탈중심적인 글쓰기의 전형으로 돈끼호떼 전통의 복구와 계승발전을 논의한 『세르반떼스 혹은 독서의 비판』, 비꼬와 바흐젠 이론을 수용하여 소설의 비종결성을 흡수·소화한 『용감한 신세계』,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집약하여 자신의 소설론과 소설의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는 『소설의 지형도』에 이르기까지, 푸엔떼스는 자신의 관점을 일괄되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푸엔떼스의 소설론 자체는 독창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소설이란 장르 자체가 아직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진행형의 장르로써 정의자체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장르라는 점과 소설장르의 특성으로 이종혼합(sincretismo)과 이어성(heteroglosia)을 든다면, 푸엔떼스의 소설론이 타 이론들의 종합장이 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소설은 바흐젠이 말한 대로 언어의 격투장이며 미완성의 장르이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이러한 ‘형성 중에 있는 장르로서의 소설’(novela como género en proceso de formación)에 대한 푸엔떼스의 소설론을 살펴보고 ‘잠재소설’의 정의와 푸엔떼스의 소설론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언어의 다의미성을 보장해주는 이종혼합의 중남미 대륙의 바로크성 그리고 초역사적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신화와 신화구조가 잠재소설의 기본구조임을 밝히고자한다.

## II. 소설의 새로운 언어

20세기 초의 중남미소설은 19세기에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여러 사조들, 낭만주의, 리얼리즘, 자연주의 등을 아메리카 대륙에 실험하는 기간이었다. 20, 30년대의 지역주의적 소설은 아메리카 대륙과 사회를 이해하고자했던 노력의 산물들이었다. 하지만 푸엔떼스가 『중남

---

되어지는 것이며, 이로써 다양한 현실들이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소설 속의 현실은 언어적 구성물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이단적인 관점으로 푸엔떼스는 언어의 자성력과 잠재성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미 신소설』에서 지적하듯이 그 당시의 소설적 경향은 고발소설이었다. 소설은 무자비한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일종의 다큐멘터리였던 것이다. 19세기의 유산인 ‘문명과 야만’이라는 틀은 아직도 그들에게 유효한 이분법적 세계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주의-지역주의적 중남미소설은 1940년대에 이르면 거의 고갈되고 만다. 본질적으로 합리적 이성과 실증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과학적 사실주의로는 중남미의 현실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이성적으로 불가해(不可解)적인 중남미 현실 앞의 중남미 소설의 언어는 고작 19세기의 리얼리즘 소설의 재현언어였을 뿐이었다. 더욱이나 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언어로는 역사의 감춰진 이면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언어로 말되지 않는 것은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정복과 식민통치의 언어는 수직적이며 억압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남미의 작가들로 하여금 중남미의 감춰진 현실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탐색하게 된다. 새로운 언어에 대한 탐색작업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반이성적이며 반전통적인 전위주의를 수용하고 동시에 중남미 고유의 언어를 탐색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동일한 주제를 새로운 기법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전위주의적 기법을 차용했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문학방법인 사실주의, 자연주의로서는 중남미의 현실을 바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절실한 자각에 따라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그러한 전위문학의 기법의 중남미적용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실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언어의 마술적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푸엔테스는 억압되고 왜곡되지 않은 자유로운 언어를 통해서만 진정한 아메리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언어에게 강요되어진 고정된 의미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리고 다양한 의미를 찾아 편력하는 언어만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중남미 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의 새로운 작가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언어의 결핍이라는 명백한 증거로부터 과거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한다. 고발을 강요했던 낡은 틀은 우리의 길고 긴 거짓역사, 침묵, 수사학 그리고 복잡한 학문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더욱 열정적인 비판작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역사가 침묵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책의 대륙의 라틴아메리카는 4세기동안 유괴되고 소외되고 알려지지 않은 언어에 목소리를 주어야 하는 긴급한 격하작업(profanación)이 요구된다. 잃어버린 언어의 부활은 오늘날 중남미 소설이 건강하다는 신호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언어의 탐색을 요구하고 있다.<sup>4)</sup>

푸엔테스는 의미가 고정된 석화(石化)된 언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언어의 감춰진 이면을 들춰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새로운 언어는 바로 이런 작업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의미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언어를 말한다. 새로운 언어는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는다. 다층적이며 다의적인 언어가 구성하는 현실은 당연히 중층적이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푸엔테스에 의하면 언어를 정복하는 것은 거짓역사와 종속을 정당화해온 역사를 끝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는 혁명적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동시에 고유한 언어를 획득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정복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역사가 침묵한 것을 말하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중남미는 단층적이며 왜곡된 현실인식에서 이중혼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중남미의 진정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어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현실은 언어 속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다의미성(plurisignificado)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새로운 언어는 기표(significante)와 기의(significado)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지시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갈등하는 언어가 되며, 이로 인해 다층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sup>5)</sup> 한마디로 중남미 신소설의 언어는 바흐찐이 말하는 수

4) Carlos Fuentes, *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Joaquín Mortiz, México, 1969, p.30

5) 바흐찐은 소설의 언어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가 투쟁·갈등하고

많은 의미가 서로 갈등하는 '격투장의 언어'가 된 것이다. 이제 현실(Realidad)이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현실들(realidades)을 만들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소설의 혁명은 직선적이며 은밀한 시간 개념의 거부이며, 단 하나의 시간, 문명, 언어의 개념에 대한 반란에 있기 때문이다.

### III. 바로크성(lo barroco) - 중남미 소설의 시공간(cronotopo)

시간과 공간은 서사물(narrativa)의 형식을 결정한다. 바로 이 점에서 바흐젠의 시공성(時空性)(cronotopía)의 개념은 소설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역사와 문학간의 동화과정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정의라고 바흐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학에 있어 예술적으로 동화된 시공간의 관계를 cronotopía라고 부른다. 형식과 내용의 범주로서 시공성은 문학 속의 인간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이 이미지는 항상 본질적으로 시공간적이다.<sup>6)</sup>

이와 같이 시공성(cronotopía)은 소설의 근본적인 서술형태를 조직하는 중심요소이다. 시공성은 공간에서 시간을 인지하도록 하며 사건간의 대화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바흐젠의 시공간의 개념은 푸엔테스의 소설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푸엔테스는 이질적인 시공간이 혼재하고 있는 중남미대륙(인도-아프로-아메리카)에서 중남미소설의 이종혼합(異種混合)적인 바로크적 특성을 본다. 과거가 현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중남미적 현실에서 '순수'소설이 잉태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남미의 모순적인 현실은 소설에 다양한 담론형태를 제공하

---

있다고 말하고 있다(bivocalismo). 패러디(parodi)는 이러한 소설언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치인 것이다.

6) Mijaíl Bajtín, 'Las formas del tiempo y del cronotopo en la novela' en *Teoría y Estética de la novela*, Taurus, Madrid, 1989, pp.237-238

고 그 담론들은 소설적인 특징인 이어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중남미 소설의 언어는 불균형, 부조화 그리고 역동적인 탈중심적인 바로크적 언어이다.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현실에 뿌리를 둔 이중적 언어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소설의 구조를 역동화(逆動化)한다.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표는 기의와 분리되어 계속 미끄러질 뿐이다.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현실은 이로 인해 역동적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중남미적 현실에서는 기표가 기의와 쉽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샴니즘에서 말하는 떠도는 영혼처럼 기의를 떠나서 헤매고 있다.<sup>7)</sup> 기표는 또 다른 기표로 미끄러지며 기표들의 증식만을 초래할 뿐이다. 중남미 현대소설에서 나타나는 바로크적 특성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바로크적 언어의 특성은 글쓰기에 있어 언어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있다. 즉 언어 자체의 유희<sup>8)</sup>를 즐기는 것이다. 글쓰기는 현실의 법칙과는 다른, 언어의 법칙의 또는 말장난의 광장인 것이다.

실제로 언어를 매체로 하는 문학은 바로 그 언어가 구축해 온 문학적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되쓰기이며 양피지성 글쓰기이며 패러디인 것이다. 소설은 언어들들의 잔치가 된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푸엔테스는 오늘날의 소설은 언어이며, 신화이고 구조라고 말한 것이다. 끊임없는 이름짓기 작업(trabajo barroco)을 통해 다층적인 중남미 시공간을 자기화(identidad)하고 목소리를 주어 다성적(polifonía-pluricultura)얼굴을 되찾는 작업이 중남미 소설의 임무인 것이다.

이질적인 것들,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들 간에 유사점을 찾는 작업은 현기증 나는 작업일 것이다. 극단적인 은유는 순간의 불꽃이다. 순간의 미소로 마주하고 이내 흩어지는 찰나적 접촉일 뿐이다. 이 찰나적 접촉으로 의미는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소설언어의 의미는 독서의 매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의미는 항상 수

7) 이것을 라캉은 <떠도는 기표>(el significante flotante)라고 표현하였다.

8) 언어는 차이에 의해 의미를 갖는 자의적 체계이며, 기표는 단 하나의 기의를 갖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의를 가짐으로써 환유의 고리를 가진다.

많은 의미들이 잠재해있는 거대한 용광로인 것이다. 소설의 언어가 이중적(bivocalismo)이라는 바흐찐의 말은 ‘소설은 최종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푸엔테스의 소설론으로 자리한 것이다. 무한한 의미가 잠재해있는 잠재소설로 말이다.

의미란 현존재의 미래의 참여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해석학적 틀은 소설의 독서에서 실천된다.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는 생겨난다. 소설은 타자와의 대화의 광장인 것이다. 소설 속의 다양한 시공간(cronotopo)은 소설의 다의적 언어의 잠재성과 비종결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다양한 시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중남미의 이중혼합적 현실은 그것을 이름짓는 다양한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 중남미소설은 이러한 다양한 시공간들간의 대화의 장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무질서 속의 질서나 부조화의 조화로 얘기되는 바로크적 언어가 중남미란 토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동어반복일 줄도 모른다. 탈중심적인 바로크적 언어만이 이질적인 중남미의 시공간을 말할 수 있다. 역으로 이질적인 공간은 바로크의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 IV. 신화

중남미는 복합문화와 혼혈의 공간이다. 과거는 현재 속에서 미래와 함께 녹아들어 지금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와 대화인 소설에 탄력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화<sup>9)</sup>이다. 신화의 세계는 오염되지 않는 이야기 중심적·주제 중심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 추상적인 그리고 순수한 문학적인 세계이다. 그리고 신화의 세계는 비유적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 모

9) 레비-스트로쓰에 의하면 신화는 극단적으로 대립된 두 양극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상상적 매개의 기능을 한다. 현실적 매개는 어디에도 완전 실현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성이 신화와 예술을 잉태시킨다.

두가 마치 무한한 일체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 밖의 모든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푸엔테스는 이질적인 시공간의 통합구조로 신화구조를 이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소설은 언어, 신화, 구조라고 했다. 그의 단편소설인 『차크물』이 다시 부활하여 지금의 거리로 나서는 것은 과거의 현재화이다. 초시간적이며 보편적 구조를 지닌 신화는 반대적 요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화해시키고 차이점들을 무화(無化)시킨다. 사실주의(verosimilitud)의 기법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사물과 비슷한가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사실주의가 암시적인 직유의 예술인 것처럼, 신화는 암시적인 은유에 의한 동일성의 예술이다.<sup>10)</sup> 푸엔테스는 그의 모든 소설에서 반대적인 것들 간의 결합을 추구한다. 미(美)추(醜), 순수함과 사악함, 과거와 현재, 친숙함과 낯설음, 자연과 문명은 신화적 구조 속에서 통합되면서 중남미 문학의 고질적 이분법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한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과거는 굳지 않도록 매순간 다시 창조되어야만 한다. 과거는 우리들의 여기, 지금의 기억에 달려있으며 미래는 우리의 여기, 지금의 욕망에 달려있다. 기억과 욕망은 현재의 상상력이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지평인 것이다.<sup>11)</sup>

10) 라깡은 은유법을 압축(condensación), 환유법을 치환(置換)(sustitución)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은유와 환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다.

은유 (la métaphore) = 압축 (la condensation) = 대체 (la substitution) = 공시성 (la synchronie).

환유 (la métonymie) = 치환 (le déplacement) = 결합 (la combinaison) = 통시성 (la diachronie)

환유법은 <술을 마신다>는 말을 <잔을 든다>라고 표현할 때 나타난다. 즉 술이란 내용물이 잔이라는 담은 그릇으로 치환되었는데 그 까닭은 술잔과 술에는 인접성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소쉬르 언어관이 나오기 전에 꿈작용을 은유와 환유로 풀이했다. 사회에서 금기된 욕망은 의식의 고리가 약한 틈새를 밀고 들어와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꿈내용은 두 단계를 거쳐 변형된다. 첫 단계는 내용이 압축된 어떤 것으로 바뀌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여 다시 인접된 어떤 것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압축과 전치 displacement, 혹은 은유와 환유이다.

11) Carlos Fuentes, *Valiente Mundo Nuevo*, F.C.E., México, 1990, p.49

푸엔테스는 문학은 언어적 상상력을 통해 여기, 지금의 현재에 통합되는 욕망(미래)과 기억(과거)의 산물이라 말한다. 이런 이유로 소설은 대화의 장이며 시간들의 수렴장소이다. 신화의 중립적 구조인 공시대(sincronía)를 역사란 통시대(diacronía)와 교차하게 만들어 현재화(contemporaneidad)하는 작업<sup>12)</sup>은 푸엔테스에 의하면 이름짓기(nominación)와 목소리(voz), 기억(memoria)과 욕망(deseo)이다. 이름 없고 억압받은, 감춰진 중남미 현실들을 복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름짓기와 목소리부여는 중남미문학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며 기억과 욕망은 아메리카 대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역사를 복수화하는 기본적인 동인(動因)인 것이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름과 목소리: 중남미 대륙의 고유한 글쓰기를 이 보다 더 잘 나타낼 수는 없다. 이름과 목소리: 이는 다른 어떠한 정보 체계보다 우리 문학이 잘 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 문학의 목적이 기억과 욕망이었기 때문이다. 죽어 버린 과거를 지닌 살아 있는 현재는 없으며, 지금 우리 욕망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살아 있는 미래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글은 서사시와 신화 즉 유토피아와 바로크라는 근본적 운동과 중남미 현대 소설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일은 이 근본적 운동과 그의 기능들인 이름짓고 목소리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욕망하는 기능이 함께 지속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sup>13)</sup>

그리고 이 4가지 기능은 중남미문화의 틀을 구성하는 삼중운동과 결합되어 중남미문학을 구성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12) 역사와 초역사적인 신화의 관계를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호관계로 볼 수 있다. 원심력이란 역사의 지평을 넘어 초역사적 질서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리키며, 구심력이란 역사는 좁은 의미체계 속으로 인간의 존재를 모아들이려는 힘을 뜻한다. 원심력과 구심력은 어떤 경우이나 동일한 강도로 작용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역사의 절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원심력이 구심력을 압도하여 초역사적 공간으로의 전폭적인 확산을 초래한다. 전자는 현대인의 역사의식을, 후자는 고대원시인들의 원형반복적인 삶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cf., 멀치아 엘리아데, 『성(聖)과 속(俗)』, 학민사, 서울, 1997.

13) Carlos Fuentes, *Valiente Mundo Nuevo*, op.cit., pp.28 - 29.

중남미 문학운동은 또 다른 우리의 문화형태들과 함께 연속성을 부여하며 우리의 역사를 감시해왔다. 이 책에서 나는 중남미문학을 유토피아 운동으로 간주했다. 이 유토피아 운동에 구세계가 꿈꾸었던 신세계와, 정복으로 인해 무참히 깨어져버린 유토피아적 환상을 노래한 서사가 있으며, 또한 혼혈과 바로크, 이종혼합과 복합문명 그리고 다인종의 새로운 문화로 서사시와 유토피아에 대답했던 반(反)정복이 존재하는 것이다.<sup>14)</sup>

푸엔테스는 정복을 질서의 파괴로 간주했으며 고대원주민의 화려한 영광을 침묵케한 사건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이 침묵 위에 스페인은 권위적인 질서와 억압과 폭력을 행한다. 이러한 반대적이며 적대적인 것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신화를 말한다. 신화는 다의미인 잠재적 언어를 통해 참과 거짓 그리고 현실과 환상과의 경계를 무시한다. 신화는 우리들의 잠재적 욕망의 보편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아직 실현되지 않는 시공간의 잠재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이 신화적 구조를 지닐 때 소설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 V. 언어의 구성물 -소설

『세르반테스 혹은 독서의 비판』에서 푸엔테스는 『돈키호테』의 자성적(自省的) 글쓰기에 주목한다. 『돈키호테』에서 푸엔테스는 소설은 실체가 아니라 언어의 구성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푸엔테스는 이러한 세르반테스의 글쓰기 태도를 ‘만차의 전통’(Tradición de la Mancha)이라 명명하고 리얼리즘의 글쓰기 태도와 구분한다.<sup>15)</sup> 언어는 사물의 투명한 이름들이 아니며 자신의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자율적인 체계이다. 문학과 현실간의 관계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다는 기계론적이며 기호적인 단순관계는 아니다. 푸엔

14) *Ibid.*, p.27 - 28

15) Carlos Fuentes, *Cervantes o crítica de la lectura*, Joaquín Mortíz, México, 1976.

떼스가 주목한 세르반테스의 글쓰기는 이러한 소설의 현실반영설로부터 언어를 추출한 점에 있었다. 소설을 현실의 반영이 아닌 언어의 구성물(construcción verbal)로 본다면 독서는 훨씬 더 자유로와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법칙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는 항상 현실을 소환한다. 소설을 언어의 구성물과 허구적 사실로 간주해도, 언어의 지시적 기능이 작용하여 외부적 현실의 잔영이 잔류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언어로 구축된 허구적 현실과 '실재하는' 외부 현실과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환상적 유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글쓰기는 문학전체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실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부 현실을 직접 경험한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언어화된 느낌 즉 문학적 관습 속에서 구축된 상징을 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문학적 글쓰기는 '원형'<sup>16)</sup>의 반복이며 되쓰기이며 글에 대한 글쓰기인 것이다. 『돈끼호떼』, 『트리스트랩 샌디』, 『운명론자 작크』 등은 『돈끼호떼』의 에코이다. 이러한 자의적인 소설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허구적 차원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현실의 법칙을 넘나든다. 이들의 글쓰기 법칙은 거울의 유희인 것이다. 세계는 거울에 반영되면서부터 존재론적 무게를 상실하고 만다. 무한히 증식되는 거울의 유희를 통해 소설은 현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현실을 구성하고 변화시킨다. 돈끼호떼는 세상을 향해 마술을 거는 동시에 마술에 걸린다. 만차의 전통을 계승한 푸엔떼스는 소설은 철저하게 언어의 구성물로 본다. 이렇게 언어들의 자유로운 놀이터로서의 소설은 더 폭넓게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16) 여기서 사용한 원형(arquetipo)이라는 용어는 노드럽 프라이(Northrop Frye)용어로 작품과 작품을 연결해주는 '반복된 상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음.

## VI. 미완의 장르 - 잠재소설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세계는 단일 의미의 배척과 다양한 의미의 수용에 있다. 바흐찐이 말하는 대화주의와 카니발화된 언어(lenguaje carnavalizado)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언어(plurisignificado)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카니발화된 언어는 소설을 현실의 반영의 도구에서 창조의 주체로 만들며 복합현실을 잠재화하도록 만들었다. 이질적인 시공간이 공존하는 소설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소설을 '잠재소설'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러한 소설이 서사언어로 표현되면서 잠재적 역사와 인간의 완성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고 예고하기 때문이다.

잠재소설이란 자의식적인 세르반테스 전통의 복구인 것이다. 이러한 세르반테스 전통 속에서는 소설은 스스로가 소설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래서 등장 인물 또한 단순한 언어적 존재, 즉 단순한 이름일 뿐이며 소설내의 모든 것이 언어적 구조물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써 소설은 자유와 다양함을 담는 그릇이었으며 그리할 것이다. "소설은 영원히 잠재적 사실로서 제공된다. 즉 소설은 하나의 임박한 가능성으로, 또한 현실의 창조로서 제공되는 것이다."<sup>17)</sup> 홀리오 오르떼가와 행한 인터뷰에서 푸엔테스는 자신을 잠재소설의 작가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바흐찐의 소설론에 힘입어 푸엔테스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소설은 어떠한 형태의 정의도 거부하기 때문에) 소설을 정의하려한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적 글쓰기 형태를 『소설의 지형도』(Geografía de la novela)에서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다. 푸엔테스가 지금까지 탐색해온 소설의 형태를 잠재소설이라 명명하고, 이는 테크닉의 확충, 개방의지, 창조와 전통관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들은 바흐찐에게 힘입은 바가 큰데, 바흐찐의 카니발화된 언어와 시공간성은 푸엔테스 자신의 소설 구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7) Carlos Fuentes, *Geografía de la novela*, F.C.E., México, 1993, p.19.

첫 번째, 테크닉의 확충은 바흐젠의 갈등언어를 다루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언어중의 하나일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언어가 집합하는 모래판이어야 한다. 소설은 다른 방식으로는 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등장인물들의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언어, 서로 상이한 역사적 시간, 문명들의 만남의 장소이다.<sup>18)</sup>

두 번째는 바흐젠의 소설의 비종결성(inconclusividad)과 동시대성이 다. 이를 푸엔떼스는 미래를 향해 열리는 의지로 표현하고 있다.

소설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다. (...) 소설은 지금 이루어지거나 혹은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세계를 취급하고 있다. 소설은 창조 과정중의 신세계의 목소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 장르의 미완특성과 동일하다 (...) 소설은 아직 아닌 것을 얘기한다.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sup>19)</sup>

세 번째는 문학의 대화론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푸엔떼스는 이 관계를 과거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 번째 관점은 두 번째 관점과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인데, 과거 없이는 현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근대성의 직선적 시간관의 배척인 동시에 비꼬(Giambattista Vico)의 나선적(esprial) 시간관의 수용이다: “역사는 중단 없는 진보가 아니라 나선형 움직임이며, 그 속에서 진보는 회귀적 요소와 교차하며 이들 중 많은 것은 퇴행적이다. (corsi e ricorsi)”<sup>20)</sup>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합리성을 비판했던 비꼬는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을 지녔고, 대화주의를 인식론의 체제로 간주할 때는 또한 대화주의자였다. 푸엔떼스는 이러한 비꼬의 관점에 힘입어 문학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hipertextualidad)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 *Ibid.*, pp.26-27.

19) *Ibid.*, p.27.

20) *cf.*, Carlos Fuentes, *Valiente mundo nuevo*, *op.cit.*

문학은 과거와 현재가 계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사건이다. (...) 소설의 지속성은 그의 수용성에 달려 있으며 이 수용성이란 해석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학운동을 주도, 그리고 이 운동에 흡수되기도 하는 작품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들은 언어적 상상력을 통한 미래와 과거를 향한 열린 상태인 것이다.<sup>21)</sup>

소설의 가능성에 대한 푸엔페스의 탐구는 그의 소설적 글쓰기의 화두였다. 새로운 언어와 소설의 가능성을 탐색해온 푸엔페스는 1987년에 발표한 『미완의 크리스토팔』(Cristóbal Nonato)에서 새로운 언어의 모든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홀리오 오르떼가와 가진 인터뷰에서 푸엔페스는 『미완의 크리스토팔』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완의 크리스토팔」의 언어는 언어의 능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는 현실의 카멜레온 식의 변화를 감지하려는 시도이다. 「미완의 크리스토팔」에는 언어의 축적이 있고, 외국어를 포함, 다른 모든 언어와의 결합 시도가 있으며, 언어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모든 형태의 언어의 카니발식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가령 조이스의 portmanteau와 같은 언어의 창조, 영어와 아스페까어의 불가능한 듯한 혼합이라든가 영어와 스페인어의 혼합등 독수리와 황소의 혼합일 수도 있는 일련의 괴기스러운 접합 등이 있다. 혹은 독수리와 뱀의 혼합도! <sup>22)</sup>

잠재소설은 현실(la realidad)를 보지 않고 실존(la existencia)을 본다. 이러한 실존이란 이미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소설가는 실존의 탐구자인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에서 푸엔페스는 소설가의 임무는 상상력으로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지닌 소설가로서 푸엔페스는 현실(lo real)의 경계를 넓히는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소설의 가능성들을 탐구해 왔다.

21) *Ibid.*, p.28.

22) Julio Ortega, Entrevista, p.640.

현실이 다층적(realidad plurívoca)이라면, 그 현실 자체를 다양한 독서적 관점에 구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문학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현실의 다층성(polivalencia)이란 이름으로 문학은 현실을 창조하며 더한다. 그리하여 문학은 문학이전이나 확고한 진실들에 대한 언어적 상용관계이기를 포기한다. 새로운 종이 위의 현실 즉 문학은 세상사를 얘기하지만 문학 자신이야말로 세상에 새로운 사실인 것이다.<sup>23)</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설은 하나의 언어적 구조물이며, 언어는 세상을 명명(命名)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바로 소설언어의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잠재소설은 가능태의 보편성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 VII. 나오는 말

푸엔테스는 소설의 언어를 수단에서 목적으로 전환시켰다. 이제 언어는 세계를 읽지 않고 창조한다. 언어는 투명한 지시적 도구에서 자기 자신에 주목하는 자기 충족적 세계를 구성한다. 푸엔테스에 있어 문학은 감춰지고 숨겨진 현실의 드러냄이며 침묵한 언어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소설은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아마도 결코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설은 이미 주어진 현실의 반영이 아닌 새로운 현실의 창조이다. 이와 같이 소설은 결코 최종적인 말을 하지 않는 영원한 가능성이며 잠재태이다. 즉 소설은 세계와의 열린 대화인 것이다. 푸엔테스는 오늘날의 소설적 글쓰기가 인식론적 글쓰기에서 존재론적 글쓰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소설은 결코 현실을 탐구하는 인식의 도구가 아니다. 소설은 언어유희의 공간일 뿐이다. 역으로 우리가 현실을 포착하는 유일한 도구가 언어라면, 그 언어가 구성하는 세계 역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소설은 언어의 구성물이다.

23) Carlos Fuentes, *Cervantes o la crítica de la lectura*, op.cit., p.93.

언어는 하나의 기호이다. 그 기호는 내적 규칙에 충실한 뿐이며 더 이상 지시대상에 구속되지 않는다. 언어가 그 원초적 기능인 마술적 기능을 회복할 때 소설은 그러한 언어들의 자유로운 광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푸엔떼스가 바라보는 소설은 허구적 언어의 구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설이 허구적 언어의 구조물이란 존재론적 위상으로 인해, 소설은 무한한 상상력을 보장받게 되고 다양한 '현실들'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푸엔떼스가 말하는 '잠재소설'이다.

우리의 현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래도 언어일 수밖에 없다. 역동적인 현실은 역동적인 언어로 포착할 수밖에 없다. 기의와 기표의 일대일 관계는 해체되고 기표는 기의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텅 빈 중심'의 주변을 부유(浮游)한다. 부유하는 기표에 따라 무한히 증식되고 넘치는 기의는 결코 마지막 의미가 표출되지 않는 잠재소설로만 답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소설은 매 번의 독서행위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일종의 '해체적'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노드럽 프라이, 『비평의 해부』, 한길사, 서울, 1993.
-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학민사, 서울, 1997.
- Bajtín, Mijaíl, *Teoría y Estética de la novela*, Taurus, Madrid, 1989.
- Fuentes, Carlos, *La nueva novela hispanoamericana*, Joaquín Mortiz, México. 1969.
- \_\_\_\_\_, *Cervantes o la crítica de la lectura*, Joaquín Mortiz, México, 1976.
- \_\_\_\_\_, *Geografía de la novela*, F.C.E., México, 1993.
- \_\_\_\_\_, *Valiente Mundo Nuevo*, F.C.E., México, 1990.
- \_\_\_\_\_, *Cristóbal Nonato*, F.C.E., México, 1987.
- García Gutiérrez, Georgina, *Los disfraces*, Colegio de México, México, 1981.
- Genette, Gérard, *Palimpsestos*, Taurus, Madrid, 1989.
- Hernández de López, Ana María, *La obra de Carlos Fuentes: una visión múltiple*, Pliegos, Madrid, 1988.
- Hutcheon, Linda, *A Poetics of Postmodernism*, Routledge, New York, 1988
- \_\_\_\_\_, *The Politics of Postmodernism*, Routledge, New York, 1989
- Kundera, Milan, *El arte de la novela*, Vuelta, México, 1988.
- Ordiz, Francisco Javier, *El mito en la obra narrativa de Carlos Fuentes*, Univ. de León, 1987.
- Patricia, Waugh, *Metafiction*, Methuen, New York, 1984.
- Sarduy, Severo, 'El barroco y el neobarroco', en *América Latina en su literatura*, SigloXXI, México, 1972.
- Scholes, Robert, *Fabulation and Metafiction*, Univ. of Illinois, Chicago, 1979.

Revista *Quimera*, México, No.1, 1988.

Varios, *Carlos Fuentes, Premio <Miguel de Cervantes>* 1987,  
*Anthropos*, Madrid, 1988.

Waugh, Patricia, *Metafiction, The Theory an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Methuen, New York, 1984.

\_\_\_\_\_, *Practising Postmodernism Reading Modernism*, Edward  
Arnold, New York, 1992.